| 현불 논단 |

통일불사, '마음 천도재' 준비부터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월 27일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전 세계인의 이목이 판문점에 집중
'완전 비핵화 통한 평화 구축' 합의

전쟁 · 분단,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겨
종전선언으로만 모든 게 치유 안돼
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해야

남북 불자들이 '마음의 봄' 맞이토록
불교계가 분단의 상처 치유 나서야

2018년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많은 일정들이 생중계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판문점에 집중되었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었던 터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특사교환을 통해 회담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조율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를 논의하는 회담장소로 정해졌다. 오랜 관계경색을 풀어내기 위한 남북한 예술단 공연도 남북관계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일정들에 '남북이 하나'라는 이야기와 상징이 세심하게 담겨져 마음의 울림을 주고 있다.

남북정상은 3개조 13개 항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군사적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한은 정상회담직전인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간 기존합의의 철저한 이행과 남북관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였다. 판문점 선언은 2007년 10.4선언의 합의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감안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의 내용들이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남북정상은 남북관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분단과 전쟁은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단순히 종전선언을 한다고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 하는 노력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전면적인 생사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고향에) 가봤으면 좋겠구나'는 노래말처럼 남북한은 실향민들의 고향방문 길을 열어야만 한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되었던 불교계의 교류협력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불교계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마음의 천도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서원하는 마음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불자들이 '마음의 봄'을 맞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둘 아닌 도리'로 한반도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여 한다.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정성스런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하늘도 감동할 것이다.

社 說

사지 보호, 문화 전승의 또 다른 이름

'알쓸신잡' 경주편에서 경주 천마총에 간 유시민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다. 어렸을 때 천마총이 언덕인지 알고 뛰어 놀았다는 말이다. 어릴적 동산처럼 뛰어놀던 곳, 그냥 무심코 동네 어귀에 있던 돌이, 그리고 밭으로 만들었던 땅이 1980년대 이후에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로 지정되던 기억들이 있다.

한때 경주에서도, 익산에서도 많은 우리 문화재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채 방치됐다가 뒤늦게 문화유산으로 평가 받는 일이 있었다.

얼마전 백제 최대 사찰로 알려진 대통사지로 추정되는 절터가 확인됐다. 하지만 공주시의 한옥 신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사전조사 형식의 발굴조사에서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 됐음에도 한옥 신축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수천년 동안 보존한 문화유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웃나라에서 3000년 보존할 때, 우리의 문화재는 침략자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혹은 반출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문화재 또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채 개발이라는 무지의 행위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중요성에 문화재청은 2010년부터 조계종과 전국사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사지와 사지에 묻혀있는 문화재를 보호할 사적 지정이 더디다는데 있다. 사지로 조사되더라도 사유지로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우리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발 빠른 사지의 사적 지정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韓 · 中 유학승 교류 환영한다

한 · 중 불교가 매년 유학승 상호 초청해 수학하는 인적 교류를 본격 시행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5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이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중국 승가교육 현장 방문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위파(佘波) 중국 국가종교국 부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불교가 추천하는 10명의 유학생을 교환해 각국 불교교육기관에 수학토록 하자"고 제안했고, 중국 불교계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조계종은 중국 국가종교국과 협의 통해 교환 수준과 형태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상호협력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불교는 오랜 시간동안 역사와 문화 등을 공유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 중 불교간 유학승 교류는 환영할만 하다. 이 같은 한 · 중 유학승들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양국 불교 발전뿐만 아니라 불교 세계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현재 중국의 승려 수는 24만 명으로 각 지역마다 4년제 불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사찰의 불학원은 한국의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와는 달리 학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10명의 유학승이 상호 교환될 경우 이 같은 학위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협의를 통해 불교학을 배울 수 있는 베이징대 등서 수학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향후 한국과 중국불교 양측이 원만하게 만족할 만한 협의를 통해 좋은 인적 교류들이 이루기를 바란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허울뿐인 종교계 출산 장려

2017년 출산율 1.05명.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도 출생 · 사망통계 잠정 결과'서 드러난 우리나라 출산율이다. 이는 2005년 1.08명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2016년 40만6200명보다 11.9% 감소했다. 2001년 이후 어느덧 17년째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초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위기상황을 감지한 듯 가정의 달을 맞아 미혼 · 육아병행 직장인 등을 초청해 저출산 좌담회를 여는 중이다. 이달에만 3차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당사자들에게 듣고,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되기도 한다.

종교계도 힘을 보탰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4월 30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국민운동을 선포했다. 종지협은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 △생명존중 사상 전파 및 자살예방 노력 △임신 · 출산 ·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을 위해 나설 것을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결혼정보 전문업체 '가연'과 협약을 체결했다. 혼인율을 높이고자 미혼남녀를 위한 '커플 매칭'에 힘을 쏟겠단 의미다.

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종지협의 이 선언이 수년 전 발표한 선언문과 똑같은 데다 출산 장려의 첫 열쇠를 '혼인'에 뒀다는 점이다. 먼저 2015년 12월 8일 종지협은 황교안 前국무총리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때 발표한 선언문은 얼마 전 발표한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똑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당시 각 종교 대표자가 지금과 다르다는 것뿐이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종지협이 저출산 관련 사업을 실시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저출산 극복에 허송세월한 데 대한 반성도 없이 마치 없던 일인 양 종교계 선언을 답습하는 모습은 탁상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결혼정보업체와 협약을 맺은 것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2018년 현재, 결혼이 곧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사고방식은 소위 '꼰대' 소리를 듣는다. 통계청이 2016년 12월 발표한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인 신혼부부 117만9000쌍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1만9000쌍으로 전체 35.5%에 달했다. 혼인 1~2년차를 제외한 3~5년차 부부 71만5000쌍 중에서는 19.3%가 자녀를 낳지 않았다. 이 같은 통계서 단순히 혼인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혼부부들은 맞벌이 또는 무주택일수록 자녀가 없었다. 당연한 결과다. 시간적 · 경제적으로 자녀를 낳아 양육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혼인'에 집착하는 종교계의 노력은 대중에게 박수를 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했다면 종교계가 보육시설을 짓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보탰어야 할 일이다. 또한 각 종교 종무원들이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마련하는 게 순서다.

얼마 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 근무하는 한 종무원에게 쉬는지 물어봤다. 한숨 섞인 그의 대답은 짧았다. "우린 근로자 아니고 그냥 종무원이에요."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우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